

## 5장 안철수 현상의 분석

김준석

2011년과 2012년 두 해의 한국정치를 논하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안철수 현상”이다. 이전까지 정치에 몸을 담아본 적도 없고 공직경험도 전무한 키 작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2011년 가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른바 ‘양보’를 토대로 단숨에 대권후보군으로 올라섰다. 그 해 9월의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여겼던 박근혜 후보를 지지율에서 앞서면서 2012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1,700억 상당의 사재를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이나 총선에서의 “앵그리버드” 동영상 투표 독려, 지난 9월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과 후보단일화 협상, 돌연한 후보 사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 그리고 심지어 대선투표일 미국 출국까지 안철수 전 교수의 행보는 18대 대선의 중요 방점이 되었다.

서울시장 재보선, 19대 총선 그리고 18대 대선까지 굵직한 선거가 연이었던 지난 일 년 반, 안철수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2012년의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그 자체가 현상이었다. 안철수 현상이 한국 정치판을 구조적으로 뒤흔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당도 조직도 없이 여론조사 지지율로 대변되는 대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후보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기성 정당이 아닌 새로운 한 인물을 통해 표출

하고자 했던 대중의 힘이 있었다.

대선 정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제3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김종필,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등 제3후보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왔다. 하지만 이전의 어떤 후보도 안철수 전 교수처럼 1년 이상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단단히 유지하면서 양자대결에서 여당 후보를 앞설 만큼 위협적인 경우는 없었다. 또한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큰 관심, 기대 그리고 우려를 함께 받는 제3후보는 드물다.

흥미로운 것은 안 전 교수가 지난 두 해의 굵직한 선거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두 번의 큰 양보와 외곽에서의 지원을 통한 안 전 교수의 행보가 그의 '새 정치'의 핵심일 수는 있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 그 자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실증적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안철수가 출마하였다면~' 식의 가정에 기반을 둔 설명과 시나리오가 제시되거나 일회적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특정 시점의 안 전 교수 지지자의 특징, 관심 또는 지지이유 정도가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안철수 현상이 실제 투표 결과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 역시 분명한 비약이다.

결국 가장 좋은 자료는 안 전 교수 지지자들에게 긴 호흡을 가지고 반복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글은 안철수 현상에 나타난 유권자의 표심이 지난 1년 간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먼저 안철수 전 교수 개인을 통해 표상화 된 목소리의 주인공들, 즉 안 전 교수 지지자들은 누구였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이념의 측면에서 분류하여 살펴본다. 그리

고 안 전 교수에 대한 유권자의 호감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다른 주요 후보들의 결과와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는지 역시 살펴볼 것이다. 한 정치인의 갑작스런 부상은 당시 시대정신 또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들이 안 전 교수를 통해 기대했던 정치인의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 역시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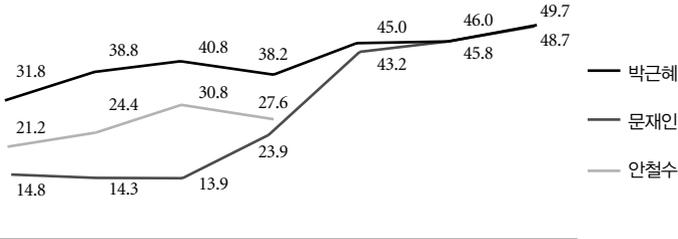
이 글은 한 편의 연구 에세이다. 따라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 조사(KEPS 2012) 자료를 통해 가능한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기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질문과 답은 확정된 것이라기보다 이후의 연구를 위한 문제제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 안철수의 지지도 변화

안철수 현상을 보여주는 데 가장 적절한 지표는 안철수 전 교수의 가상대결 지지율의 변화일 것이다. 2011년 가을 서울시장 출마 고려와 이른바 지지율 50퍼센트의 5퍼센트에 대한 양보로 안 전 교수는 정치권의 태풍으로 등장하였다. 그 해 9월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승리하는 최초의 야권후보가 되면서 안철수 현상이 시작되었고 2012년 11월 23일 안철수 전 교수가 대통령 예비후보를 사퇴하기까지 부동의 지지율 2위를 고수하였다. 소속 정당은 물론 정치경험도 없는 안 전 교수를 일약 ‘현상’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은 대선에서의 가상대결 지지율이었다.

KEPS 2012의 일곱 차례 대선 가상대결 지지도 변화의 추이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우선 총선 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1차 조

[그림 1] KEPS 2012에서 나타난 대선후보 지지율 변동 (퍼센트)



1차(3.30-4.1) 2차(4.12-15) 3차(8.20-23) 4차(10.11-14) 5차(11.25-27) 6차(12.11-13) 7차(12.20-22)

■ 주. 분석에 선택된 케이스는 마지막 7차 조사까지 남아있었던 KEPS 2012 참여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음.

사에서 안철수 전 교수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21.2퍼센트였다. 총선 후,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안 전 교수의 지지율은 24.4퍼센트였고 8월 3차 조사에서 지지율 30퍼센트를 돌파(30.8퍼센트)하였다.

안 전 교수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할 시점이던 10월 4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27.6퍼센트였다. 4월 조사시점은 흥미롭게도 안 전 교수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암묵적인 수준에서이지만 예측되던 시점이다. 안 전 교수가 11월 23일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후 실시된 세 차례(5-7차)의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 전 교수의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팽팽한 지지율 접전을 이어갔다.

## 질문 하나, 누가 안철수를 지지했는가?

이 절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안 전 교수에 대한 지지를 통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이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안철수 현상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교수의 지지자를 파악하는 일은 또한 문재인 후보의 낙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전히 대선패배에 따른 책임 논란과 내홍(內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8대 대선에 임하는 야권의 대전략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였던 까닭에 야권의 대선패배에 대한 진단은 우선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자 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교수 지지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두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있어 단일화의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웠고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를 18대 대선 결과에 비추어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전 교수로 후보 단일화가 되었다면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었을 것인가?”라는 식의 질문을 떠올리는 것은 엄밀한 과학적 추론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겠지만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본 절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교수 지지층 비교분석은 “만약에~ 하면?”(what if?)이란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자료는 안 전 교수가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대선 삼자구도를 형성하게 된 2012년 10월 4차 조사부터이다.

안철수 전 교수 지지자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에

서는 20대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6.6퍼센트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문재인 후보(25.1퍼센트)나 박근혜 당선인(18.3퍼센트)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성별에서 있어서는 안 전 교수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율이 26.4퍼센트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20.9퍼센트보다 높았으며 전업주부 층에서도 안 전 교수의 지지율(23.7퍼센트)이 문 후보의 지지율(17.2퍼센트)보다 높았다. 여성 응답자의 열 명 중 네 명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답했고(40.7퍼센트) 주부층에서의 지지율은 46.9퍼센트에 달했다. 거주지역에서 안 전 교수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이었다. 안 전 교수가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뒤지는 지역은 부산, 경남, 울산이 유일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안 전 교수의 지지율이 문 후보보다 높았다. 특히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안 전 교수의 지지율이 27.1퍼센트로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44.7퍼센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17.6퍼센트)과 비교해서는 약 1.5배 정도 높았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안 전 교수의 지지율은 31.9퍼센트로 문 후보의 지지율(26.8퍼센트)과 비교하여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31.9퍼센트)과 같았다.

지역 규모로 보면 안철수 전 교수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차별화 되는 지역은 광역시나 도시가 아닌 군-읍-면 지역 유권자의 표심이었다. 군-읍-면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후보는 역시 박근혜 당선인(49.4퍼센트)이었으나 안 전 교수에 대한 지지율(28.1퍼센트)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13.7퍼센트)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지정당에 따른 지지율 차이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 안철수 전 교수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5.4퍼센트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 3.1퍼센트보다 높았다. 무당파의 지지율에서는 안 전 교수가 40.0퍼센트로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 21.6퍼센트나 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 23.0퍼센트 보다 높았다. 주관적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안 전 교수는 중도적 유권자로부터

[표 1] 대선후보 3인의 지지자 비교 : 사회경제적 분석(KEPS 2012 4차 조사 기준, 단위 : 퍼센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계
		38.2	23.9	27.6	100.0
성별	남성	35.6	27.0	28.9	100.0
	여성	40.7	20.9	26.4	100.0
연령	19-29세	18.3	25.1	46.6	100.0
	30-39세	26.8	30.6	33.8	100.0
	40-49세	29.6	30.9	27.7	100.0
	50-59세	52.2	20.7	17.9	100.0
	60세 이상	64.1	11.4	12.9	100.0
학력	고졸 이하	49.6	19.6	19.4	100.0
	대재 이상	28.1	27.7	34.9	100.0
	모름/무응답	72.4	27.6	0.0	100.0
직업	농/임/어업	59.9	15.6	16.0	100.0
	자영업	46.8	25.7	21.8	100.0
	판매/영업/서비스	38.4	23.0	28.7	100.0
	생산/기능	44.3	23.0	24.8	100.0
	사무/관리/전문	21.8	34.0	31.4	100.0
	주부	46.9	17.2	23.7	100.0
	학생	10.9	28.9	48.5	100.0
	무직/퇴직/무응답	41.5	18.1	32.1	100.0
지역	서울	36.1	24.6	27.9	100.0
	인천/경기	31.9	26.8	31.9	100.0
	대전/충남/충북	44.7	17.6	27.1	100.0
	광주/전북/전남	12.3	34.5	43.8	100.0
	대구/경북	61.8	13.4	15.0	100.0
	부산/울산/경남	46.1	23.2	19.7	100.0
강원/제주	50.1	18.5	19.3	100.0	
지역규모	광역시	37.9	24.6	27.2	100.0
	시지역	36.4	25.1	28.0	100.0
	군지역	49.4	13.7	28.1	100.0
지지정당	새누리당	85.0	3.1	5.4	100.0
	민주통합당	7.6	54.7	31.8	100.0
	통합진보당	14.7	27.9	45.6	100.0
	다른정당	9.5	29.9	48.2	100.0
	지지정당없음/기타	23.0	21.6	40.0	100.0
이념	진보	17.0	39.1	36.0	100.0
	중도	33.6	24.9	31.5	100.0
	보수	57.2	14.5	18.0	100.0
	모름/무응답	58.5	12.6	13.8	100.0

31.5퍼센트의 지지를 받았으며 문 후보의 경우 중도적 유권자의 네 명당 한 명 정도(24.9퍼센트)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박 당선인은 보수적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우위(57.2퍼센트)는 물론 중도적 유권자에서도 33.6퍼센트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안 전 교수와 문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러한 안철수 전 교수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 분석을 18대 대선 결과와 연결하면 어떠한 추론이 가능할까? 먼저 중앙선관위가 투표일 당일 오후 6시 잠정 집계한 18대 대선 투표율은 75.8퍼센트였다. 지난 17대의 투표율 63.0퍼센트나 16대의 70.8퍼센트였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높은 투표율이었다. 높아진 투표율은 지난 두 번의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새로운 유권자가 2012년 대선 투표장에 대거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세간의 해석처럼 “진보(좌파)세력에 분노한 중장년층의 반란”이 일어난 것일까? 대선 당일 방송 3사의 출구조사의 50대의 투표율 추정치 89.1퍼센트는 일단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실제 투표 자료에 근거해 투표율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50대의 투표율은 82.0퍼센트였다. 이는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16대 대선의 50대 투표율 83.7퍼센트보다 오히려 낮아진 수치다. 지금 50대는 10년 전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핵심지지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공 보수-박정희 향수’의 늙은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는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60대의 경우에서도 투표율 상승이 있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16대 78.7퍼센트, 18대 80.9퍼센트).

오히려 여성의 투표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투표율의 상승은 물론,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의 투표율(76.4퍼센트)은 남성(74.8퍼센트)을 앞섰으며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선거 가운데 여성의 투표율이 중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

표율보다 처음으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선거 판세를 좌우한 연령층은 50대가 아닌 20대 여성으로 보인다. 20대 여성 중에서도 20대 전반의 여성들이 투표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실제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모든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이 상승한 가운데 20대 전반의 여성(46.2퍼센트→70.1퍼센트)과 20대 후반 여성(46.0퍼센트→69.2퍼센트)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다. 대선 두 달 전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도 여성과 20대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던 것이 실제 대선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김준석 2013).

문재인 후보의 선거 전략의 실패는 10월 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당시 문 후보의 지지층은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진보적 성향의 지지자에 국한되어 있었고 30-40대 남성들이 핵심 지지층으로 기능했지만 표의 확장성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여성들의 표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주부층에서 안철수 전 교수는 물론 박 당선인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지지율은 박 당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지지에서도 박 당선인보다 크게 뒤지고 있었다.<sup>1)</sup>

하지만 선거 당일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는 “박정희 대 노무현” 혹은 “군부독재 대 민주화 세력”의 낡은 선거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문재인+안철수 > 박근혜”라는 지지율 셈법만 보고 안 전 교수의 확실한 지원사격만 얻어내려 매달렸다. 여성의 표심잡기를 위한 특화된 공약이나 관련 인선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박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취약

1) 18대 대선 결과는 대전, 충남, 충북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큰 격차로 따돌렸을 뿐 아니라 야권이 승리를 기대했던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문 후보를 앞섰다 (대전은 박근혜 50.6퍼센트, 문재인 49.7퍼센트, 충남은 박근혜 56.7퍼센트, 문재인 42.8퍼센트, 충북은 박근혜 56.2퍼센트, 문재인 43.3퍼센트, 인천은 박근혜 51.6퍼센트, 문재인 48.0퍼센트, 경기도는 박근혜 50.4퍼센트, 문재인 49.2퍼센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및 서민생활권지역은 거의 배제한 채 광장 중심의 대도시 방문에 집중하고 있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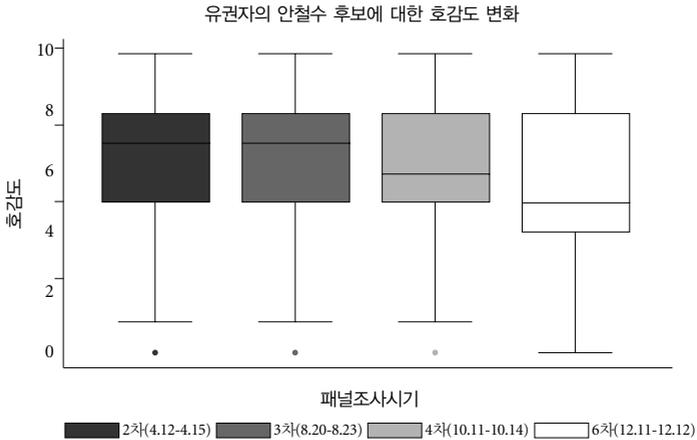
## 질문 들, 안철수에 대한 대중의 호감,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KEPS 2012 참여유권자들의 호감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은 지지정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문재인 후보와의 호감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본 절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KEPS 2012 참여유권자들의 호감을 시간의 흐름, 지지정당 그리고 후보단일화의 파트너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과 비교하고자 한다. KEPS 2012 중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호감을 묻는 설문은 2차(4.12-4.15), 3차(8.20-8.23), 4차(10.11-10.14), 6차(12.11-12.12)에 포함되었다. 설문은 안 전 교수에 대한 호오를 0점(매우 싫음)에서 10점(매우 좋음)의 범위에서 1점 단위로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2]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KEPS 2012 참여 유권자들의 호감도 변화를 조사 시기에 따라 상자그림(box plot)으로 나타낸 것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의 중간값(median)은 낮아지고(응답자의 25퍼센트에서 75퍼센트 범위의 값을 포함하는) 상자의 크기가 점점 아래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0점(매우 싫음)의 비중이 투표일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안 전 교수의 출마선언 이후, 후보 단

2) 물론 지지도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측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교수가 가져올 수 있는 지지도의 단순결합만이 야권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다.

[그림 2]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호감의 변화



일화 → 사퇴 → 문재인 후보 지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안 전 교수에 대한 특정 계층 응답자의 호감이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이 전반적으로 내려간 요인도 작용하였겠으나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응답자도 상당수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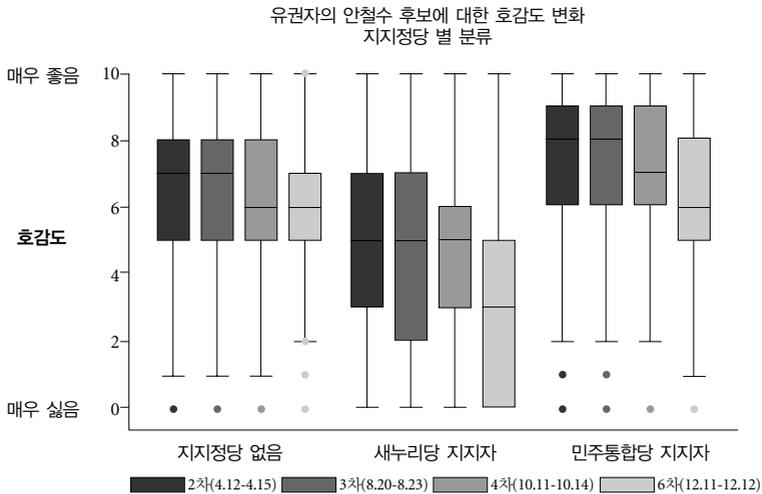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KEPS 2012 참여유권자들의 호감도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시점부터 후보사퇴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를 KEPS 2012 참여유권자들의 지지정당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그 맥락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그림3]은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를 시계열로 배열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안 전 교수의 대선 출마 공식선언 전에 조사된 2차(3월), 3차(8월)에서는 물론 공식선언 이후에 조사된 4차(10월) 그리고 후보 사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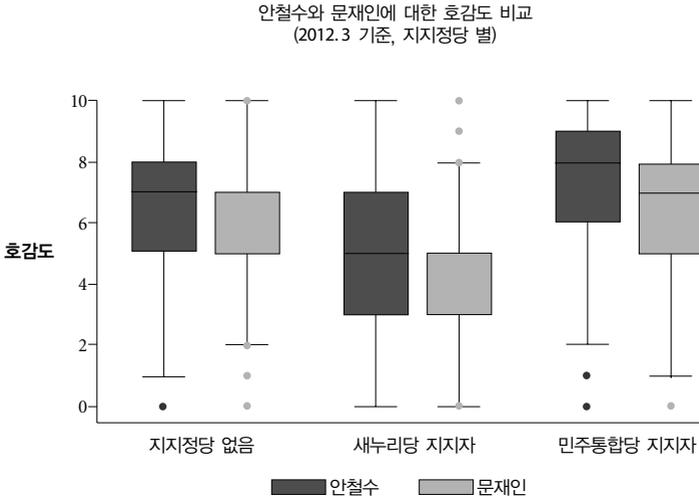
후인 대선 일주일 전 조사된 6차(12월)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호감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통합당 지지자에서의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의 중간값은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보 사퇴 이후 안 전 교수의 문재인 후보 지원 강도를 놓고 논란들이 있었다는 점을 본다면 이례적인 결과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는 초기의 ‘좋지도 싫지도 않은’ 정도에서 투표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매우 싫은’ 정도로 하락했다. 6차 조사(12월)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52.8퍼센트가 안 전 교수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네 명 중 한 명 이상은 안 전 교수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즉 0점으로 답한 비율이 27.2퍼센트였다. 무당파에서의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는 대체로 높게 형성되어

**[그림 3]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 변화 : 지지정당별 분류**



[그림 4] 안 전 교수와 문 후보 간 호감도 비교 (KEPS 2012 2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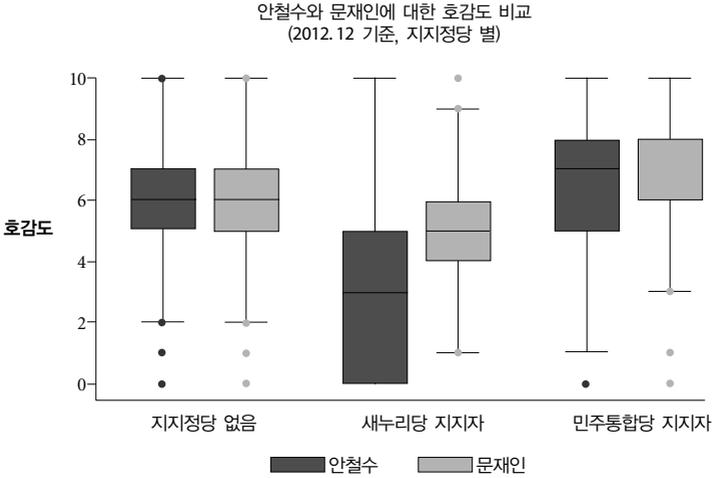


있었으나 투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소 하락하는 추세가 보였다.

[그림4]와 [그림5]는 안철수 전 교수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2차(3월) 조사와 6차(12월) 조사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19대 총선 직후에 실시된 2차(3월) 조사에서 안 전 교수에 대한 호감도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 4.8점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 7.5점 그리고 무당파에서 6.7점 정도였다. 안 전 교수를 “매우 싫어한다”(0점)라고 답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12퍼센트 정도였다. 문 후보의 호감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 4.1점,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 6.8점, 무당파에서 5.7점 정도였다. 문 후보를 “매우 싫어한다”(0점)라고 답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14.1퍼센트 정도로 안 전 교수보다는 높았다.

6차(12월) 조사에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들의 미움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전 교수에게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안 전 교수와 문 후보 간 호감도 비교 (KEPS 2012 6차 조사)



안 전 교수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26.5퍼센트로 박근혜 당선인(32.1퍼센트) 보다는 낮았으나 문재인 후보(17.2퍼센트)보다 높았다. 안 전 교수에 대해 “매우 싫어한다”(0점)라고 답한 비율은 박 당선인 지지자들의 23.2퍼센트,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27.2퍼센트에 달했다. [표2]에서와 같이 60대 이상의 50.1퍼센트가 안 전 교수를 싫어한다고 답하였고 매우 싫어한다(0점)고 답한 비율도 32.6퍼센트에 달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열성적 지

[표 2] 세대별 대선후보에 대한 극단적 애증 표시비율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매우싫다	매우좋다	매우싫다	매우좋다	매우싫다	매우좋다
20대	20.6	1.5	1.8	5.4	2.2	5.7
30대	15.7	4.7	1.9	6.7	2.1	5.4
40대	15.3	7.2	2.7	5.1	5.9	6.1
50대	8.3	18.4	3.2	8.4	14.2	4.5
60대 이상	3.1	33.3	9.9	6.1	32.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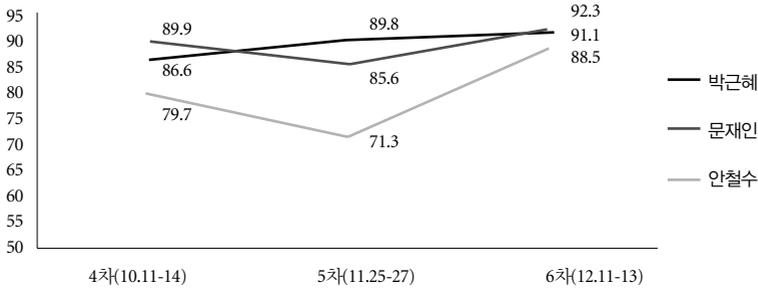
지층도 그리고 적극 반대층도 없는 ‘무색무취’의 후보로 보는 경향을 나타냈다.

## 질문 셋, 안철수의 표는 온전히 문재인 후보에게로 흡수될 수 없는 표였나?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전 교수 지지자의 표심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은 안 전 교수 후보 사퇴 이후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의지가 다른 후보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안 전 교수의 후보 사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 안 전 교수의 본격적인 대선행보 이후에도 지지자들의 투표참여 의지는 다른 후보 지지자들과 비교해서도 낮아지고 있었다. 4차(10월)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률은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에서 86.6퍼센트, 문재인 후보 지지자에서 89.9퍼센트였지만 안철수 전 교수 지지자에서의 79.7퍼센트로 차이를 보였다. 대선 직전, 안 전 교수 지지자들의 응답 비율이 83.3퍼센트로 오르긴 했지만 박 당선인 지지자에서의 응답비율 92.3퍼센트나 문 후보 지지자에서의 응답비율 92.4퍼센트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6]은 지난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즉 적극 투표의지층의 비율을 지지후보별로 나타낸 것이다.<sup>3)</sup>

3) 해당 문항은 “12월에 열릴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투표하지 않겠다, 아마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아마 투표할 것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다섯 가지로 기록하였다. 해당 문항은 7차에 걸친 KEPS 2012 4차, 5차 그리고 6차 조사에 포함되었다. [그림 6]은 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지지후보별 적극 투표의지증 비율



## 질문 넷, 안철수 지지자 중 투표 당일 박근혜를 찍은 사람은 누구인가?

18대 대선에서 야권의 필승전략은 ‘후보 단일화’였다. 16대 대선의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검증된 모형이기도 했고 19대 총선에서도 비록 새누리당에 과반 의석을 내어주긴 했지만 야당이 얻은 표의 합은 여당이 얻은 표보다 많았다. 다자대결에서 야권이 절대 열세였지만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당선인과 비교하여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거나 오히려 우세한 결과가 나타난 여론조사도 여기에 힘을 보탤었다. KEPS 2012 중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른바 “후보단일화=야권 필승”론은 산술적 근거가 있어 보였다. 4차(10월) 조사 중 다자대결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3.9퍼센트였고 안철수 전 교수는 27.6퍼센트로 그 합(51.5퍼센트)이 박근혜 당선인의 38.2퍼센트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대두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을 경우 야권 후보 간 지지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야권의 기대와 달리 대선 결과는 박근

혜 당선인 51.6퍼센트 그리고 문재인 후보 48.0퍼센트였다.<sup>4)</sup>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음에도 이탈표가 상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오히려 박근혜 당선인에게로 옮겨갔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교수의 지지자를 어느 정도나 자신의 지지자로 흡수하였는가? 안철수 전 교수의 지지자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sup>5)</sup>

4차(10월) 조사에서 안 전 교수 지지자들 중 대선 직후 실시된 7차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비율은 78.8퍼센트였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비율은 18.1퍼센트나 된다. 기존의 안철수 전 교수 지지자들 중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수는 18대 대선의 전체 투표자 수 30,721,459명을 기준으로 보면, 5,560,584명(18.1퍼센트 적용 기준)이 된다. 18대 대선에서 1위와 2위 간 득표 차가 1,080,496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야권 단일후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전 교수의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것이 18대 대선에서 야권 패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sup>6)</sup>

야권의 지지자 이탈은 안 전 교수 지지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문 후보의 지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4차(10월) 조사에서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KEPS 2012 참여유권자 중 11.2퍼센트가 7차 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를 감안하더라도 10월 이후

---

4) 18대 대선 직후 조사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47.7퍼센트였고 문재인 후보라고 답한 비율은 48.7퍼센트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1.0 퍼센트포인트)에 있어 KEPS 2012의 결과가 대단히 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 절의 “안철수→박근혜 지지이동자”는 안 전 교수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실시된 4차(10월) 조사 중 다자간 대결 문항에서 안 전 교수를 지지하였으나 대선 직후 실시된 7차(12월 20-22일) 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패널이다.

6) 물론 이는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환산 수치이다.

**[표 3] 안철수 전 교수 지지자의 대선 표심 이동 (단위 : 퍼센트)**

		7차 조사(12월 20일-22일) : 실제투표			
		박근혜	문재인	다른 후보	모름/무응답
4차 조사(10월 11일-14일) : 지지후보	박근혜	95.0	4.5	0.0	0.6
	문재인	11.2	87.0	0.5	1.4
	안철수	18.1	78.8	0.8	2.3
	지지후보 없음	51.7	47.1	0.0	1.1

진행된 본격적인 대선가도에서 야권은 기존 지지자들의 이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3]은 안철수 전 교수 후보사퇴 이후의 표심 이동을 정리한 것이다.

안철수 전 교수 지지자 중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4차(10월) 조사 중 다자대결구도에서 안 전 교수를 지지한다고 답한 KEPS 2012 참여 유권자의 수는 259명이었다.<sup>7)</sup> 이들 중 7차 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수는 47명(4차 조사에서 안 전 교수 지지자 중 18.1퍼센트)이었다. 47명의 성별, 거주지역, 연령, 학력, 직업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우선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지역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및 부산, 울산, 경남권의 비율이, 그리고 거주자 연령대에서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재 이상의 비율이 고졸 이하에서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에서는 사무/관리/전문직과 가정주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철수 전 교수 후보 사퇴 이후 박근혜 당선인으로 지지를 선회한 KEPS 2012 참여 유권자 중 새누리당 지지자의 수는 12명(25.8퍼센트)이었다. 무당파의 비중은 34명(72.8퍼센트)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안 전 교수 지지자들 중 선거 당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지

7) 4차(10월) 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답한 KEPS 2012 참여유권자의 수는 358명이었으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수는 215명이었다.

**[표 4] 안 전 교수 지지자 중 박 당선인 투표자 특성 1**

구분	항목	응답자 수	%
성별	남성	20	41.8
	여성	27	58.2
거주 지역	서울	11	23.4
	인천/경기	13	28.6
	대전/충북/충남	3	6.6
	광주/전남북	6	12.1
	대구/경북	5	9.8
	부산/울산/경남	8	18.0
	강원/제주	1	1.5
연령	20대	10	20.6
	30대	11	23.3
	40대	14	28.7
	50대	9	18.4
	60세 이상	4	9.0
학력	고졸 이하	21	44.9
	대재 이상	26	55.1
직업	농/임/어업	1	1.7
	자영업	6	13.1
	판매/영업/서비스	8	17.6
	생산/기능/노무	2	5.0
	사무/기술직	10	20.7
	주부	15	30.9
	학생	2	4.1
	무직/퇴직	3	6.9

정당이 없거나 새누리당 지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안 전 교수에서 박 당선인으로 지지를 선회한 KEPS 2012 참여유권자의 상당수는 안 전 교수 사퇴 이후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일에서야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한 비율이 19.5 퍼센트였으며 투표 2-3일 전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퍼센트였다. 투표 일주일 전 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16.2퍼센트였다. 결과적으로 과반수(59.5퍼센트)에 달하는 안 전 교수 지지자들이 대선 일주일 전까지 지지후보를 정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되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66.4퍼센트에 달함으로써 전체 조사 결과의 응답비율 50.1퍼센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20.7퍼센트는 “민주당이 잘못해서”를 꼽으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6.0퍼센트에 불과했다. 안전 교수에서 박 당선인으로 지지선회를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후보 단일화와 민주당의 과실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표 5] 안전 교수 지지자 중 박 당선인 투표자 특성 2**

구분	항목	응답자 수	해당 %	전체 %
지지정당	새누리당	12	25.8	35.3
	민주통합당	1	1.4	23.0
	없음/모름/무응답	34	72.8	37.8
투표결정 시점	투표 당일	9	19.5	6.3
	투표 2-3일전에	11	23.8	10.5
	투표일 1주일 전 경	8	16.2	12.3
	후보자 등록전후	6	12.1	22.0
	투표일 한 달 전 경	4	9.0	15.3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9	19.3	33.7
선거결과 요인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	3	6.0	15.4
	새누리당이 잘해서	3	5.4	1.2
	문재인 후보가 잘못해서	1	1.5	4.7
	민주당이 잘못해서	10	20.7	18.2
	야권후보 단일화가 잘 안되서	31	66.4	50.1

## 결론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양당체제를 선호한다.”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으로 잘 알려진 이 간결한 가설은 무소속 혹은 제3당의 후보가 왜 당선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수득표를 한 후보 1인이 당선되는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는 당선가능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당제를 견고하게 한다. 반면 제3후보는 “사표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유권자의 심리적 제약을 안고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토대로 기존 정당의 틈바구니를 뚫으려는 제3후보의 시도 역시 쉽지는 않았다. 제3후보의 영향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제3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었다. 우리와 큰 틀에서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체제가 정립된 1852년 이래 41차례나 대통령선거를 치렀지만 당선자는 양대 정당 후보자 중 일인이었다.

안철수 현상으로 인해 바짝 긴장한 것은 기존 정치권이었다. 안철수 전 교수의 부상이 곧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글이 아닌 안철수 현상에 대한 글이다. 따라서 안철수 전 교수를 대선 유력후보자로 끌어올린 유권자는 과연 누구이고 안 전 교수의 후보사퇴 이후 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안철수 전 교수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은 상호 이질적이어서 “1+1=2”와 같은 지지율 결합은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 야권은 단일후보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지언정 기존 안 전 교수 지지자들의 이탈을 최소화 하는데 실패하였다.

야권의 대선전략은 안 전 교수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고 문재인 후보의 취약 지지층을 회복할 정책의 제시나 체계적인 선거운동 역시 실현하지 못했다. 야권이 안 전 교수를 잡으면 지지자들도 그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있던 것은 아닐까?

이번 18대 대선에서 분명한 것은 최종 승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부동의 1위였다. 결국 18대 대선은 이른바 안철수 현상과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에 가려진 박근혜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

#### ■ 참고문헌

김준석. 2013. “정치시평 : 지난 대선 50·60의 역습은 없었다”. <내일신문>. 2월 25일.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Phil Paolino and David W. Rohde. 1995. “Third-Party and Independent Candidates in American Politics: Wallace, Anderson, and Pero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0, 3: 349-367.